

野 “민생 문제 현안 외면 ... 안보강의에 가까웠다”

박대통령-3당대표 청와대 회동 무슨 얘기 오갔나

박지원 우병우 거취 묻자, 박대통령 “수사결과 보고 말할 것”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검찰 개혁 달라진 게 없어 실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12일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회동을 시작했다.

남색 재킷에 하늘색 셔츠, 회색 바지 차림의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 먼저 입장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맞으며 악수를 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3당 대표들과 원형 테이블 앞쪽에 서서 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와 감사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촬영 도중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 실험으로 인해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안보나 경제에서도 여러 위험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 패일수록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한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우리의 합의된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회동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 대표는 곧바로 “더불어 또 민생과 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회담 의제를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펼쳤다.

추 대표는 회담이 시작하기 전 자그마한 소형 쇼핑백을 박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쇼핑백에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USB가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어 본회담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의 규탄에만 같은 목소리를 냈을 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대저 방안에 대해선 입장차가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등 대북압박만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 대표와 박 위원장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로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두 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배치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순방 결과 비롯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연합뉴스

한 더민주 추 대표의 제안도 거부했다.

우병우 청와대 정부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조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은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확연한 입장차이와 관련, 더민주 추 대표는 회담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

과 만나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데 대한 위기가, 절박함에 대한 현실인식이 아직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회동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한 더민주는 윤관석 수석대변인을 통해 “영수회 담이랑기보단 안보강의에 가까웠다”며 “박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한 민생문제와 현안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아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귀향 본격 민생 탐방

재래시장·경로당·터미널 돌며 애로 청취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예년보다 일찍 귀향 활동에 들어가면서 추석인사 등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선다.

여야 지도부가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경로당,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각각 뺄뺄한 일정을 잡는 등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을 예정이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생 탐방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활발한 ‘민생 행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명절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각 선거구의 재래시장 방문 일정도 대부분 포함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 광천터미널과 광주 송정역에서 추석 귀향인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광주시당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민주노총 공공운수 임원진 간담회,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임원진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역구 경로당과 복지관, 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지역구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등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등을 중심으로 민생 행보에 나서며 119센터와 지구대 및 파출소 등을 돌며 격려할 예정이다.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은 남광주·

대인·산수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며 장바구니 물가 등 지역 경제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3일 광주역에서 일일역장을 하며 귀향인사를 하고, 14일에는 운암시장 등 지역구 재래시장에서 추석인사를 진행한다.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주민 간담회와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지역민 이외에도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자동차밸리 및 에너지밸리 전문가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장흥·고흥·보성·강진을 매일 돌며 추석인사를 진행하고, 국민의당 손

금주(나주·화순) 의원은 13일 ‘화순 5일장’을 찾아 귀향인사를 한다.

전남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은 각 마을단위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행사 등을 돌며 지역민을 만날 계획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지역민심이 중요한 만큼 지역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민생 행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13일 광주 유스퀘어 광장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귀성객들에게 추석인사를 하고 정책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시민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석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더민주 소속 시·구의원, 당원,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폭력시위” VS “과잉진압”

국회 ‘백남기 청문회’ 여야 공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2일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의 폭력 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백 씨를 종태에 빠뜨린 살수차 진압 행위 등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는 증인으로 나서 부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술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불법폭

력시위는 특정 이익단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당시 시위대의 일부는 차박에 밧줄을 묶어서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망치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고 지적한 뒤, 살수차 사용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 함없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살수차를 ‘살상무기’로 규정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를 보면서 사태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특히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쏘려뜨린 총남 9호차의 사용 보고서에는 초기 경고살수와 과사살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 ~ 2016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 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7	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9. 12(월) ~ 21(수) • 전형일 : 2016. 9. 30(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형일 : 2017. 1. 12(목)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1(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신학과(Ph.D.)	6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신학과(Th.M.)	25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